

삼성, 인천과 손을 맞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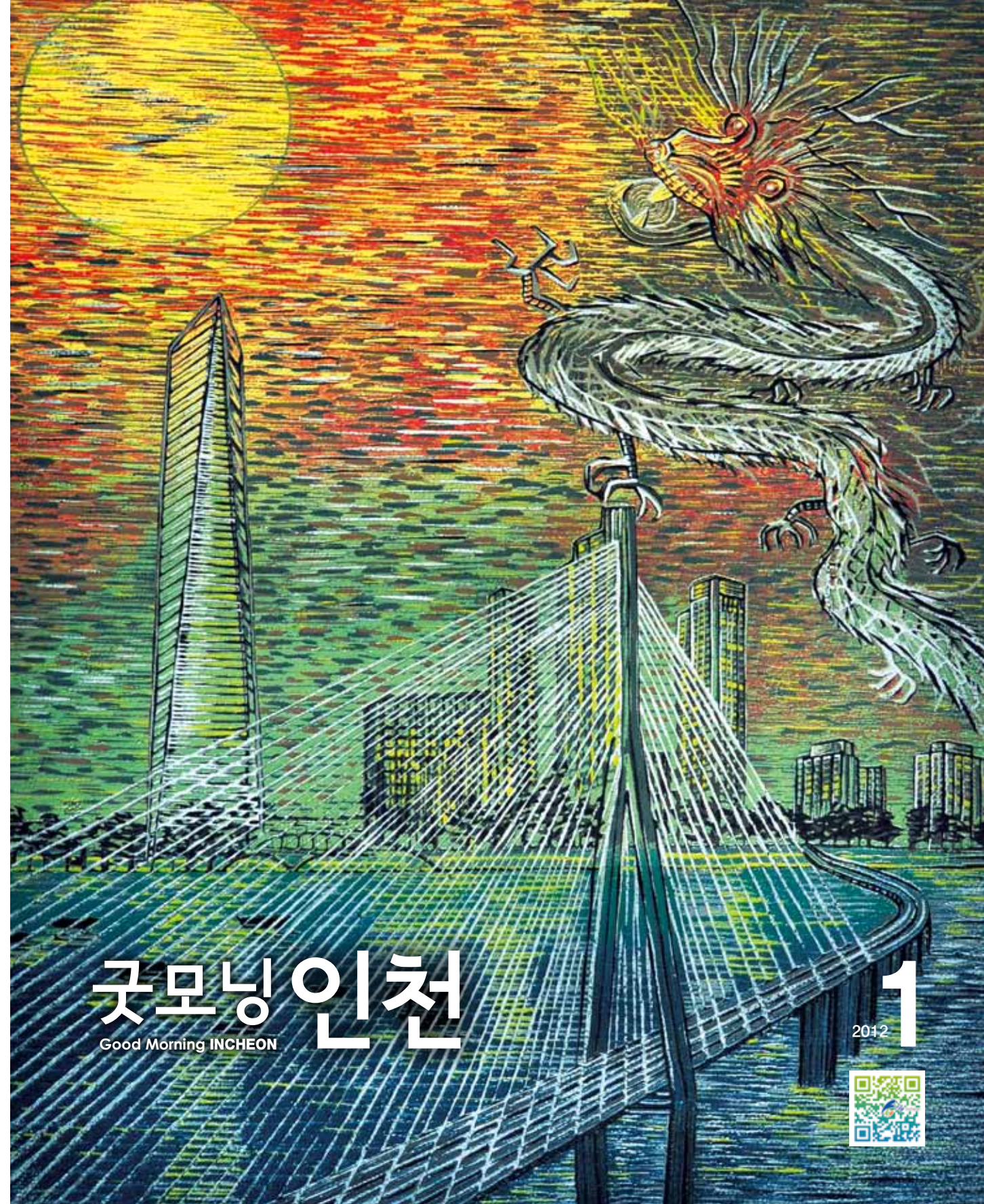
글로벌기업 삼성이 송도에 미래 대한민국을 키울 '중자'를 심었다. 삼성이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B(생명공학)산업의 동지로 송도국제도시를 택한 것이다.

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맺은 협약은 '해외첨단바이오기업 바이오파크조성'으로 위치는 송도 5공구 내 27만4천㎡, 총 투자비는 2조원 이상이다.

삼성그룹이 인천 송도를 택한 것은 30분 이내 거리에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최대항만인 인천항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면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제약 제품은 대부분이 해외수출용이고, 냉장·냉동 항공 물류가 필요하기에 송도 입지 조건은 탁월하다. 고품격 주거단지, 호텔, 공원, 외국인학교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점도 인천을 택한 이유다.

삼성은 먼저 3천30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바이오 의약 생산 제1플랜트를 완공한 뒤 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의약품생산에 본격 뛰어든다.

삼성의 송도국제도시 진출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글로벌기업도 끌어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제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상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산업의 새 지평이 열렸다.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1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17 / 2012.1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n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성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과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12년 하늘로 비상하는 인천

2012년 신년호부터 굿모닝인천 표지가 판화(작가 김경태) 형태로 바뀝니다.
세밀함과 굵직함이 조화를 이루는 판화처럼, 시민의 삶은 세밀하게, 시의 발전은 굵직하게 일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의주를 물고 인천대교 위를 비상하는 용처럼, 시민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하늘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10

-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 06 **2012 壬辰年** 인천은 용이다
- 08 **신년사**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류수용
- 10 **Enjoy Incheon** Winter on the Ice
- 14 **Focus** 2012 인천시정 키워드
- 18 **신년 특집** 새해 달라지는 인천생활
- 22 **시정토크 앱(App)** 고졸취업
- 26 **그 시간이 흐른 이 공간** 세계사 모자점
- 30 **2014 AG** 청년서포터즈 1기 활동결산
- 32 **문화뉴스** '2012 신년음악회' 외
- 34 **설 맞이** 전통시장



38



34

- 37 **책읽는 인천** '고전특독' 외
- 38 **아름다운 사람** 조해리, 최불휘
- 42 **시정카툰** 시장과의 데이트
- 43 **한방칼럼** 고혈압
- 44 **별난 물건, 별난 역사** 불조심 관련 물건
- 46 **Civic News** 시정뉴스
- 49 **Council News** 의정뉴스
- 52 **Infobox** '방학 맞은 어린이, 청소년 다 모여라!' 외
- 56 **리쿠르트** 인천 고용정보
- 57 **김치찰각** '바지락 캐러 가는 길' 외
- 58 **모닝커피 한잔** 양성욱 에코힐링스쿨 교장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 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social.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



Contents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ews.incheon.go.kr)
소셜웹(social.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인천의 고용정책에 박수를

얼마 전 TV에서 인천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요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 흐뭇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에 새 바람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강미애(경기도 시흥시)

인천 AG 국고보조금 지원을 응원합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인천 AG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지원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읽으며 2014 인천 AG 국고보조금 지원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내 고향이라는 이유를 떠나서 우리나라 위상으로 볼 때, 정부의 지원과 경제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최권 반납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며, 40억 아시아인의 대축제 인천 AG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다정(경기도 고양시)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을 보다

<굿모닝인천>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인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지난해 12월호에서 소개한 'Old but New' 창영동 편을 보며 애잔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인천을 사랑합니다.

장서정(남구 송의4동)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동네 주민센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기다리는 도중에 <굿모닝인천>을 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자랐어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책을 통해 인천의 발전상과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도 생겨 이곳을 더욱 사랑하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정진이(남구 용현3동)

인천 발전을 응원

모닝커피 한잔 '봉사는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를 전해 주는 <굿모닝인천>에 고맙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 심층적인 기사를 많이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최수진(부평구 산곡3동)

인천에서도 좋은 연극을 볼 수 있군요!

그동안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작지만 훌륭한 극장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아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진솔한 삶의 향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천의 소극장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위치와 가는 길, 소소한 정보까지 친절하게 전해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지우(부평구 굴포로)

시민을 위한 복지도시 인천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정책에 매우 만족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 놓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으니 서둘러 보안책을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도 <굿모닝인천>에 인천복지에 관한 기사를 많이 실어주세요.

최은정(서구 가좌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시에서 특히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에서 가장 좋은 교육시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순호(서구 검암1지구)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가정동 보상 과정을 지켜봤지만, 보상은 엄격하게 이뤄지면서 뒷일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속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루원시티 내 사유지 보상은 2010년 11월 경 마무리하고 현재는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가정보금자리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원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일정에 맞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bulloger 시장님, 인천시를 위해 늘 열심히 노력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청라에 7호선을 좀 연결시켜주세요. 지하철 없는 국제도시가 어디 있나요? 인천 파이팅!

도시철도 용역결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구간 연장선에 대한 편익비용이 작게 나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건설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를 지선으로 잇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ulloger 선학동 시영아파트 단지 도로 왜 들어내는 거지요. 이 공사로 개선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보도블럭 및 경계석 노후화로 사용성이 떨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 L형 측구 및 경계석 교체, 상가주변 우·오수관 재배치 등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입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조학성(당시 만 7세 2개월, 남)
발생일자 1988년 3월 1일(화)
발생장소 경기도 군포시 집 근처
신체특징 왼쪽에 흉터(가마랑 가까운 쪽)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2012년 인천은 龍 이다

2012년은 용 중의 으뜸인 '흑룡'의 해 임진년이다. 12지상 중에서도 가장 신성 시 여기는 상상 속의 용 한 마리가 북주(北洲) 주성준 작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는다. 여의주를 짊 문 채 금방이라도 구름을 뚫고 승천할 듯한 용의 모습은 바로 인천의 모습이다.

남구 학익동 작가의 집 옆 공터에는 작은 컨테이너 작업실이 있다. 이곳에서 그는 형형색색의 물감과 다양한 붓으로 백호, 청룡 등을 그려낸다.

“과거엔 민화(民畵)를 천하게 여겼어요, 민화 그리는 것 자체를 숨겼기 때문에 작가 미상이 많아요. 민화가 현대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죠.”

민화는 피카소의 초현실주의 기법에 200년 앞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입체적 기법 역시 민화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후 그는 전통 민화를 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12지상을 의인화하며 화려하고 유쾌하게 세상에 내놓고 있다. 작가의 '과일 먹는 호랑이'는 현대민화 최초로 2012년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글·사진 김민영(자유기고가)



북주(北洲) 주성준



“인천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상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 성취하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에 집중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인구 300만, GRDP 70조원의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일 것입니다.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보육·교육·청년 일자리로 대변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시는 구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창출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또 보육·교육·따뜻한 복지를 통해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무상보육·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포스코 자율형 고등학교가 올해 개교하면 교육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는 또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도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남북평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염원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새로운 1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실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상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인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굴지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이뤘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도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참여정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참여정치를 확대하고, 의회청사를 무료로 개방하고, 의정체험 및 본회의 참관기회를 제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언제라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개방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항상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당한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주요시책과 예산정책을 견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과 시정의 주요시책 및 대단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보편적 복지사업 등을 예외 주시하겠습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공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겨울, 낭만은 스케이트를 타고

시리도록 투명한 얼음판 위, ‘스익스익’ 스케이트 날이 쓸고 지나는 소리와 청량한 바람이 뒤섞여 겨울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달빛을 품은 듯 눈부신 아이스링크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겨울 이야기.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공항 그 안은 지금, 봄날

인천국제공항 사계절 스케이트장

한겨울 낭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아이스링크다. 별이 총총 뜬 하늘 아래 눈부시게 펼쳐진 새하얀 은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킥득거리고 또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며 도타운 정을 나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야외 아이스링크 못지않게 낭만적인 곳이 있다. 지난해 교통센터에 공항으로는 세계 최초로 개장한 사계절 스케이트장으로, 이미 입소문을 타고 ‘즐거찾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981m² 규모로 한번에 150명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얼음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도 충격이 덜하고 옷이 젖을 염려가 없다. 여기에 링크 안 무대에서 비보이(B-boy), 재즈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즐거움을 더 한다.

세상이 검기를 무렵, 전구 옷을 입은 나무가 일제히 불을 밝혀 은반위를 비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유히 스케이트를 타는 한 남자가 보인다. 아담(캐나다·28)씨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을 찾았다. ‘얼음의 나라’에 사는 이답게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한편에서는 사내아이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스케이트링 삼매경에 빠졌다. 평택에 사는 정찬우(8)군은 아빠와 함께 일본으로 가는 고모를 배웅하러 공항을 찾았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햄버거 먹을래 스케이트 탈래, 라고 묻는 아빠의 질문에 스케이트를 선택했다. 공항은 단순한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아닌, 하나의 여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저마다의 사연을 아로새기고 있었다.

이왕 공항에 왔으니 기분을 더 내보자.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최근 문을 열었고 근처에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몰이 들어서 있어 즐겁게 한나절 보내기 충분하다. 여기에 발걸음을 2층으로 옮기면 실내정원 ‘스타가든’이 봄날처럼 싱그럽게 펼쳐져 있다. 1천660m² 규모에 자생초화원, 아열대원, 수경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져 있어 마음까지 초록으로 물들인다.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공항에서의 겨울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다.

Tip 교통센터는 굳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들려서 즐기 좋은 나들이 장소.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교통센터에 자리 잡은 스케이트장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스케이트 및 보호장비 대여비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 국가대표 선수와 현역 선수들로부터 스케이트링 강좌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인천국제공항 스케이트장 743-7087

차가운 얼음 위, 뜨거운 에너지

외국인 아이스하키팀, 아이스홀스

건장한 남자들이 링크로 쏟아져 나온다. 15kg이 훌쩍 넘는 장비를 지니고 빙판을 질주하는 몸놀림이 놀랍도록 민첩하고 힘이 넘친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가 한겨울 영하로 곤두박질한 기온을 무색하게 만든다.

헬멧 실드 사이로 오가는 날카로운 교감, 허를 찌르는 슈팅, 강렬한 몸싸움 그리고 짜릿한 승리...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아이스하키 동호회 ‘아이스홀스(Iceholes)’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늦은 겨울 밤, 인천에서 하나뿐인 아이스링크에서 그들을 만났다. 인천에서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남스포피아가 유일하다. 더구나 선수들의 편의에 맞춰 일반인에게는 밤 시간에만 링크를 열어 두고, 그마저도 중학교 아이스하키팀과 스케이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연습시간을 배려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호회인 아이스홀스에 허락된 시간은 일주일에 단 한번,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서야 오를 수 있는 링크, 하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기에 빙상 위 시간은 더 달콤하고 짜릿하다.

아이스홀스는 지난 2001년 창단해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온 외국인과 한국인 다섯 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프로리그 2군이나



세미프로로 활동한 선수들도 포함돼 있어 실력이 수준급이다. 하지만 아직 아마추어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활동에 제약이 많다.

“아이스홀스가 인천에서 활동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의 이름을 걸고 전국 각지에서 시합을 했지만, 정작 시에서 아마추어팀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스홀스의 주장 데이비드 김(David Kim · 36)은 국제도시 인천에 외국인 아이스하키팀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10년간 살아 온 인천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른 도시에서 펼쳤던 리그를 언젠가 꼭 인천에서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한겨울 추위 따위는 날려버릴 기세로 날카롭게 퍽을 날려라! 멋진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에너지가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겁게 펼쳐진다.

아이스하키는 속도가 빠르고 박진감이 넘치는 빙상 스포츠. 한 팀당 선수는 골키퍼와 수비 2명, 공격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경기는 20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하며, 각 피리어드 사이의 휴식 시간은 15분이다. 고무로 만들어진 퍽을 스틱으로 서로 빼앗아 상대의 골에 넣어 득점한다. 인천에는 현재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 신송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이 꿈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배워요 아이스하키를 배우려면 일단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홀스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지만,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단 회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스케이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인천에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곳은 연수구의 동남스포피아 유일. 인천빙상경기연맹 소속 강사들이 스케이팅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니 스케이팅을 탄탄하게 배운 후 아이스하키에 도전하자. 정규 강습료는 월 · 수 · 금 월 9만원이다. 문의 : 동남스포피아 스케이트장 814-1331





태어나 교육받고 일하며 평생 행복한 도시

우리시는 '사람이 평생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풍부한 일자리와 수준 높은 교육환경으로 보고, 2012년 새해 시정운영 키워드로 '투자'와 '교육'을 택했다.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복지를 통해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지금 인천에는, 한 아이가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며 여유롭게 노년을 맞는 행복의 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민선5기 출범 이래 투자유치가 줄곧 활기를 띄고 있다. 글로벌기업 삼성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BI산업의 동지로 송도국제도시를 택해, 2013년 상반기부터 의약품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와 함께 롯데, 신세계, 동아제약,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이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다. 국내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결정에 시스코를 비롯한 외국자본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시는 이를 기폭제 삼아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동북권과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화교권, 중동·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의 투자유치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발판 삼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화려하게 비상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품고 있다. 구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신 성장 동력산업과 제조업을 육성해 구도심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창조적 일자리 창출 우리시는 의회, 민간과 협력해 기업유치 및 이전 방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기래(企悅企來)정책을 추진한다. 활발한 기업 유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전기를 마련하기 마련.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약6만명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천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이전 방지와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는 JST(제물포스마트타운)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인재를 발굴하고 성공창업을 지원한다. 또 비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청년인턴 확대, 중소기업 인식전환을 위한 인오메가 플랜, 산업인턴제와 해외인턴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도심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뷰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베누스인천(Venus Incheon)'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강남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만든다. 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선정해 꼴찌라는 수모를 겪던 인천의 학력을 높였다. 또한 인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채드윅 스쿨 등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 개교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의 우수학생이 인천으로 오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학력향상선도학교에는 올해부터 학생선발 정원의 20%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먼저 뽑을 수 있는 특전을 준다. 또 잠재성장형 학교에는 교육경기보조사업 우선지원 명목으로 학교당 5천만원을 지원해 인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뉴욕주립대 스톤브룩(Stony Brook)이 개교하고 오는 2015년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송도에 문을 열면, 인천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인천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 서해 평화정착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 공동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경제수도 인천’의 기초를 닦고, 접경·서해도서 주민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시는 ‘분쟁의 바다였던 인천 앞바다를 한반도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대북교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도 시는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남북평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남구 송의동 축구전용구장에 북한 ‘4·25축구단’을 초청해 경기를 열고 남북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도서 지역의 해양자원 개발과 대형여객선 도입, 여객선 운임보조 등을 통해 서해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4세부터 무상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영길 시장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통합적인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맥락으로 시는 올해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후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하는 등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 이상 아이에 무상교육을, 초등학교 1~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확충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대장정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대회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써왔다. 먼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비 6천337억원을 줄였고, 지난해 6월 주경기장을 착공했으며, 문학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심정경기장 등 모두 8개 경기장을 착공했다. 특히 서구 주경기장은 공사비 4천900억 원 가운데 법이 정한 국비지원 규모인 30%, 1천47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서포터즈 5만명을 육성, 아시아 문화외교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한다.



시민이 활짝 웃는 살기 좋은 도시 인천

임진년 새해도, 시민이 활짝 웃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또 120 미추홀콜센터와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한다. 새해, 달라지는 인천생활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교육 · 청소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향후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440-2165

국내 최초 뉴욕주립대 개교 국내 최초로 미국대학 뉴욕주립대학교가 올 3월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개교한다. 컴퓨터과학과 기술경영 석·박사 과정을 모집하며, 과정을 마친 후 미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학위를 받는다.

문의 :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440-2172

공립 대안학교 개교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올 3월 개교한다. 학교는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하며 중3·고3 6학급에 정원은 90명이다. 문의 :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440-2163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해외테마연수(호주), 일본 고베, 대만 홈스테이 교류를 신설해 진행한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4~19세 청소년.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44,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11



출산 · 보육

전국 최초 만 4세 이상 무상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 4~5세 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하며, 만 4세 아 지원은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만 4세는 일인 당 월 17만7천원을, 만 5세는 일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92~5

둘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올해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후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는 1백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에 한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75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존 108개소에서 121개소로 확충한다.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100개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92~5



사회복지

장애인에 만능 리모콘 보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독거장애노인 등에게 만능 리모콘을 보급한다. 지체(하지·척수) 및 뇌병변 1·2급 장애인, 독거장애노인 및 중증부부장애인가구 2천 667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방문해 리모콘을 설치해 준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2947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을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1인 45만3천49원, 2인 77만1천408원, 3인 99만7천932원, 4인 122만4천457원, 5인 145만982원, 6인 167만7천506원을 지급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3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운영 시각, 청각 장애인 등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를 올 3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휠체어 리프트 차량 122대에 올해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28대를 더해 운영한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03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인턴대상을 기존 29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고, 110명에서 410명으로 인턴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35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업 이용대상을 인천기업에서 전국 구인기업으로 확대되고, 사전 예약 시 야간상담도 가능해졌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44

사회적기업 발굴 ·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 올해는 17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며,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시관리 · 교육 · 복지 · 문화 공공부분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552





노인·유공자

효행장려 지원센터 운영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계승하기 위해 올 5월 효행장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운영한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3

만90세 이상 어르신 장사시설 이용 무료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만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료를 지원한다. 면제금액은 54만원이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3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시와 군·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군·구에서 통합해 지원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사망위로금 연령제한 없음). 참전명예수당은 일인당 월 8만원, 사망위로금은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73, 군·구 주민생활지원 부서



생활·민원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120 미추홀콜센터(120.incheon.go.kr)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0(시외 032-120), SNS @120incheon, 문자 032-120, FAX 032-440-0400, 수화상담 070-7947-9005, 스마트폰 '미추홀콜센터' 앱을 이용한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30

생활공감 지도 서비스 시행 올 2월부터 인허가 자가진단, 보행경로, 공공서비스 안내 등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도기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웹사이트(gmap.incheon.go.kr)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해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44

인천시 모바일 웹사이트 운영 시민과 소통하고자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최적화된 인천시 모바일 웹사이트를 서비스한다. 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m.incheon.go.kr에 접속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해 이용한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2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다. 군·구별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청소과 440-3562



교통·차량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를 시민 자율선택 요일제로 변경한다. 운휴일은 월·화·수·목·금요일 중에서 자율선택하며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52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440-3934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운행 택시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포상금은 무면허개인택시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0만원, 택시 승차거부 5만원이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48

택시 내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내에 동시통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를 서비스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ARS 전화번호는 080-840-0505.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22



건축·주택관리·소방안전

자생력 있는 주거복지사업 지원 주거복지 관련 각종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영구임대 아파트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문의 : 시 건축기획과 440-4740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올 4월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등으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다. 2주 1회 운영하며 상담비는 무료다.

문의 : 시 건축기획과 440-4734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이웃간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텃밭 조성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의 텃밭 경작 여건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문의 : 시 건축기획과 440-4734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올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은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7년 시행한다.

문의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470-3054

TALK

학력 NO 실력으로 세상과 부딪쳐라!

학력이 아닌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공정사회의 표어다. 취업과 승진, 임금에서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받아 온 고졸자에게 차별없는 고용정책이 추진된다. 낮은 취업률, 임금, 승진의 차별 장해를 없애고, 실력만으로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의미다.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찬 내일의 꿈을 실현하고자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김하나(22, 여), 최지혜(25, 여), 김병익(28, 남)씨가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이장근 잡 매니저를 멘토로 삼아 고졸취업의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크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지난 12월 12일 진행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XJAT

학력만 보고 판단하는 사회에 답답함 느껴...



이장근 : 저는 오랫동안 취업관련 상담과 잡 매니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취업상담 경력만 11년째 입니다. 취업시즌이 되면 학교에 초청돼 취업성공 노하우와 일대일로 면접상담을 많이 해와 젊은이들의 취업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상당수가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는 나중에 차이가 많습니다.

김하나 : 저는 원래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고 인천비즈니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 회계파트에 취직해 2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건강이 나빠져 그만두고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지혜 : 전남 장성에서 인문계고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건축설계 공부를 3학년 1학기까지 하다 중퇴했습니다. 도시설계 파트에서 잠깐 근무했지만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두고 의류판매, 바리스타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장근 : '고졸' 명함으로 취업이 어렵진 않았나요. 취업선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조.

김병익 : 공부는 하기 싫었고 그림을 좋아해서 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예고가 여고라서 그냥 인 천기계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고3때 의무취업을 포기하고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5~6년 동안 남동공단 부품제조 공장에서 맞고대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최지혜 :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2개월 수습하고, 정직원이 됐습니다.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회사였는데 일하는 시간도 길고 낮밤을 바꿔가며 일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파도 잘 쉴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고 힘든일을 하다보니 사무직이 너무 안정적이고 부러웠어요.

김하나 :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돈, 생활도 해야하고... 취업이 금방 안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김병익 : 불링장 정비기사, 남동공단 부품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남동공단에서는 '월·화·수·목·금·금·금' 일해야만 어느정도 보수를 받습니다. 제가 소모품처럼 느껴졌어요. 인력업체에서 구직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면접을 봤는데 덩치 좋고, 힘 좋고 일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우선으로 뽑고, 팔시는 팔시대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 소 탄 탄 한 인 맥 관 리 취 업 성 공 지 름 길 ...



이장군 : 취업의 걸림돌을 없애려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력서만으로는 경쟁해서 취업하기 힘들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채보다는 추천형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의 구인광고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평소에 인맥관리나 남들에게 신뢰가는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장군 : 취업한 후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은 있나요?

김하나 : 고졸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대졸자 채용을 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최지혜 : 서비스업을 그만둔 후 사무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경력 때문에 업체에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보다는 이력과 경력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었고,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우가 달라졌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장군 : 중소기업 사무직의 경우 고졸여사원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직률도 높습니다. 지혜씨의 경우 지금 사무직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나이가 있는 편이죠. 결혼도 앞둔 나이이구요. 소규모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김병익 : 공고를 졸업해서 대기업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2011년 중순까지 남동공단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게임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게임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학원이 없습니다. 훈련기관이 서울에 몰려있어 학원왔다 갔다 하는데 만 3시간씩 걸려요. 취업에 필요한 학원이 인천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장군 : 정부의 취업정책이 대졸위주에서 고졸취업으로 바뀌면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합니다. 전문계고, 마에스트로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노동부도 고졸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열린고용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 인천시나 노동부의 고졸취업 정책에 대해 알고 있나요?



김병익 : 전문계고인 마에스트로고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잘 몰랐습니다. 친구가 알려줘서 이곳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지혜 : 인천시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잘 몰랐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고졸 미취업자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장군 :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삶 살고 있습니다. 미래 자화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생을 꿈꾸고 있는 지 얘기해 볼까요?

이장군 : 병익씨의 경우 게임회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창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인 기업입니다. 기업가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기술을 접목시키면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쪽의 적용률이 높을 것입니다.



최지혜 : 저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 77세 할머니가 경리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직 취업을 위해 전산회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군 : 하나씨는 좀더 규모있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려면 일반회계나 경리 프로그램을 배우면 유리합니다.

이장군 :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열정이 제일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덤벼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 기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세와 품성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직장도 반드시 생길거라 확신합니다.



김하나 : 고졸취업과 관련된 अच्छ고 유익한 정보가 널리 확산됐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매체를 이용하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김병익 : 그래픽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월급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좋아하는 일하기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팀장으로 승진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김하나 : 적성을 찾았으니 목표를 이룰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 취업프로그램을 끝내고 그 분야에서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하는 것이 내가 그리는 나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

인천고용센터 460-4791~2
인천북부고용센터 540-5870



〈시정토크 앱 참여후기〉

취업 고민 서로 나누고 공유

취업문제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불안과 고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진솔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_ 하나

자신감, 도전감이 팍팍!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상태로 있으니 고립된 느낌도 들고, 자신감이 많이 줄었다.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다. 시정토크앱이 격정을 덜어줬다.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솟아나고 있다. _ 지혜

'세상과 다시 부딪치겠다' 다짐

나 스스로 고졸, 대졸이라는 커트라인을 그어놓고 학력으로 모든 걸 규정했다. 능력이 우선이고 부딪쳐봐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졌다. 저소득층이기에 교육훈련 기회를 갖고 취업이나 소규모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_ 병익

그곳에 날 주눅들게 한 고적대 모자 있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너무 한산하다. 아무리 상권이 죽었다지만 그래도 한 때 인천 제일의 시장이 아니던가. 사람 발길 대신 시장 통을 가로지는 찬바람만이 가게 문을 흔들며 지나간다.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 한창 때는 이 시장 안에 노점 가게만 갖고 있어도 부자 소릴 들을 때가 있었다. “창피해. 뭐 자랑이라고 이런 걸 소개해요.” 시류에 빠른 사람들은 돈벌어서 다 빠져나갔는 데 당신 들은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가게에 아직도 매달려 중앙 시장에 있다는 게 그저 부끄럽단다. 세계사 모자점은 혼수가게 틈에 끼어 있다. 한복집, 이불집들은 울긋불긋 화려하기라도 하지, 이 가게의 쇼윈도에는 구닥다리 모자 몇 개가 진열돼 있어 행인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전화로 대강 위치를 묻고 갔는데 두 번 그냥 지나쳤다.

모자가게이니 당연히 각양각색의 수많은 모자가 진열돼 있다.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모자 하나가 눈을 확 끌었다. 닭털 달린 고적대 모자였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학교에는 없는 다른 학교 고적대를 공설운동장에서 처음 보고 ‘우리학교는 정말 똥통학교’라고 단정지었다. 고적대원들은 다 바비인형 같았다. 나를 주눅 들게 했던 그 인형들이 썼던 그 모자가 그곳에 깃털을 휘날리며 있었다. 그야말로 ‘군계일학’이다. “1978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 만든 모자예요. 어휴, 그 때 생각만 해도 진땀이 흘려요.” 이기호(73) 정순연(68) 부부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어느날 공무원 한 명이 허겁지겁 들어와 고적대 모자 200개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 기간은 일주일. 체전

개막식을 위해 인천동 축현초등학교에서 인천연합고적대가 함께 모여 연습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자를 통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그 다음날 새벽에 집을 나선 부부는 인천시내 양계장을 다니며 닭털을 모았다. 이 사장은 모자를 재단해 형태를 만들고 아내는 금슬을 박고 노모는 닭털을 염색했다. 2,3일이 지나자 문을 열기도 전에 여자아이들이 가게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사이즈 맞고 닭털 예쁜 것을 먼저 고르기 위해서다. 이기호 사장이 모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2년 경.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누님이 인천으로 시집오게 되어 송도고 야간부에 적을 두고 뒤늦은 공부를 했다. 졸업을 막 앞두고 길에서 우연히 성광실고(선인고 전신) 학생연대장을 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에게서 학생회 자치 매점에 학생 모를 한번 납품해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모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게 모자라니...’ 아무튼 그는 모자공장에 가서

그 학교 모자를 만들어 하나에 30원씩 쳐서 납품했다. 대금을 동전으로 받아 자루에 넣고 짊어지고 오다가 터져버려 동전들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동전을 쓸어 담으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이거 이문이 괜찮은 데’

“교모 만들어 팔 때가 전성기였지. 그때 교련 모자까지 있었어요.” 한창 때는 기술자와 보조 합쳐 7명이 있었는데 신학기를 앞두고는 1천개 이상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기 일쑤였다. 대략 대·중·소 사이즈로 납품했지만 가끔 머리가 유난히 크거나 작은 학생들은 직접 가게에 와서 맞춤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부부가 털어놓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이른바 ‘범생이’ 학교에 납품하면 그걸로 끝인데 ‘좀 노는 학교’에 납품



하고 나면 며칠 후에 어김없이 학생들이 찾아온단다. 일종의 애프터서비스가 뒤따른다. “아이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저 녀석은 평생을 해달고 하겠고 저 놈은 니스 칠을 해달라고 하겠구나...’ 나름 맛을 낸다고 한거죠.” 윗층 작업장을 보여줄 수없냐고 했더니 지저분하다며 안주인이 펄쩍 뛴다. 계속 사정을 했더니 사진은 찍지 말고 그냥 보기만하라며 마지 못해 안내한다. 2층 살림집을 거쳐 3층 작업장으로 올라갔다. 한해 1천개 이상의 모자를 만들어낸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공장’이 그곳에 있었다. 수북이 쌓인 원단 조각들, 그리고 밤새워 돌렸을 재봉틀 한대. 창 너머로 경인선 열차가 한 대 지나간다. 아마 이 사장은 매일 새벽 기차 지나 갈 때 깨서 막차 지날 때 까지 재봉틀을 돌렸으리라. 그렇게 평생을 모자 만들며 2남1녀를 잘 키웠다.

“화재를 세 번이나 당했어요. 예전에는 중앙시장 건물이 죄다 목조였는데 옆집에서 불이나 우리 가게에 옮겨 붙었어요. 대목 보려고 원단을 잔뜩 사다놔는 데 그때 다 타버렸어.” 교복 자율화 후 교모는 사라졌지만 일반모자는 다양해졌다. 이 사장은 눈썰미가 좋아 한번 쓱 보면 ‘카피’가 가능했다. 사각모 주문이 들어왔을 땐 베니어판 사다가 규격대로 잘라 까만 천 씌우고 꽃술을 달았다. 그렇게 한 시간이면 서너 개씩 만들어 냈다. 복제뿐만 아니라 그 만의 창작품도 여럿 만들었다. 독특한 원단을 사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알고 지나가다 들어와선 그걸 록 찍어 사가곤 했다. “사모님 위해서 모자 하나 만들어 주신 적 있으세요.”



취재하는 두 시간 동안 손님이라곤 세 명의 아주머니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10여 분간 이 모자 저 모자 써보곤 1만5천원 짜리 털모자 하나 사갔다. 기성품 모자는 팔아도 별 재미가 없다. 단체 모자 주문이 들어와야 3층 모자 공장에 불이 켜지고 재봉틀이 힘차게 돈다. 옥상에서 중앙시장통을 내려다보니 이곳이 시장인지 의심할 만큼 한산했다.



“그게, 뭐...,” 쉬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

“원래 난 모자 쓰는 것 좋아하지 않아서.” 대신 부인의 답변이 온다.

“그럼 자녀들을 위한 모자는요.” “전혀. 아이들이 모자라면 질려서 그런지 몰라도 쓰질 않았어요.” 그런 그가 얼마 전에 손녀를 위해 색동모자를 만들어줬다고 자랑한다.

새마을모자, 경매사모자, 경비모자, ROTC모자, 요리사모자, 야구모자... 10평 남짓한 가게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모자들이 걸려 있다.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데 모자만한 게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진열장 안에 망사로 된 마도로스 풍의 모자 하나가 놓여있다. 메모지가 꽂혀 있다. ‘선금 1만원 잔금 2만원 〇〇〇’ 재작년 여름에 뱃일하는 사람이 맞춘 모자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모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뱃사람은 모자 맞춘 것을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모자만이 그 사연을 알 듯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다시 고적대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도 고적대 모자 만드세요?”

“아니, 고적대 있는 학교가 이젠 거의 없어요.”

“그럼 기념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기념은 무슨? 주문이 가끔 있어요.”

“예? 어디서요?”

“호텔에서요. 깃털 뺨 모자를 벨보이들이 사용해요.”

꽂지 빠진 고적대 모자라... 불현듯 공설운동장에서 행진하던 이웃학교 고적대 아이들의 모습이 다시 눈 앞에 펼쳐졌다.

청년, 아시아를 품다

‘낯설었던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 모인 100명의 청년들은 원래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쉽게 친해졌다. 열정 가득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과 활약을 기대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1기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소개한다.

중구 일대 탐방 및 인천시장 강연회 (2011년 9월 25일)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인천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중구다. 한국 속에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시원한 바람과 놀이기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월미도’, 과거 일본인 거주지로 형성되었던 ‘일본거리’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부하다. 중구에 모인 청년서포터즈들은 ‘중구바로알기’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팀별 미션을 수행했다. 미션을 마무리한 후 인천아트플랫폼 먹거리 공갈빵, 닭강정 시식 등의 미션을 수행했다. 미션을 마무리한 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송영길 시장의 강연이 시작됐다. 일반적인 강연회와는 달리 단상을 없애고 서포터즈와 눈높이를 맞춘 송 시장은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진행했다. 인천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송 시장은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당부하고 인생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낌없이 들려주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자매우호도시 협약 (2011년 10월 14일)

청년서포터즈는 민간외교사절단으로 활약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10월 14일에 진행된 울란바토르시와의 자매우호도시 협약식에 참여한 청년서포터즈 몽골팀은 울란바토르시 관계자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와 몽골사진전을 준비했고, 직접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송도의 매력에 빠지다 국제마라톤대회(2011년 10월 16일)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송도센트럴파크에 모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청년서포터즈들이 눈길을 끈다. 보라색 단체티셔츠에 노란색 등판문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비록 5km에 출전하지만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에서 마라톤대회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그들은 대회가 끝난 후 송도의 명물 수상택시도 타보며 송도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청년서포터즈 워크숍 장봉도라고 들어봤어? (2011년 11월 5일~6일)

인천바로알기의 일환으로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워크숍 장소로 정해졌다. 청년서포터즈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긴 했지만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다 보니 설렘반 기대반의 마음으로 장봉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장봉도라는 섬 탐험을 한 후 이번 행사의 진정한 목적인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과제발표로 청년서포터즈는 5개 국가(몽골,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에 대한 조사내용을 다른 팀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다. 각 국가별 전통 의상과 춤 등 역할극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발표가 끝난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추억을 만들었다.

연탄의 무게 3.5kg 연탄나눔 자원봉사 (2011년 11월 26일)

청년서포터즈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부평구 십정동에 모였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야외에서 활동한다는 게 걱정됐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었던 건 이런 추운날씨에 연탄불에 의지해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이다. 그래서인지 연탄을 나르는 손에 훈훈한 정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천소재의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번 나눔 봉사에 동참했다. 겨울을 처음 겪고, 생소한 연탄을 만져보고, 그 봉사에 동참했다. 겨울을 처음 겪고, 생소한 연탄을 만져보고, 그 봉사에 동참했다. 겨울을 처음 겪고, 생소한 연탄을 만져보고, 그 봉사에 동참했다. 겨울을 처음 겪고, 생소한 연탄을 만져보고, 그 봉사에 동참했다.

청년서포터즈 미션 수행 “우리 청년서포터즈다”

몽골촌 방문, 이슬람 사원 견학, 카타르팀 핸드볼 경기관람, 인도박물관 관람,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체험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필리핀 간이시장 탐방,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관람, 송도라디엔티어링 행사참가, 인도대사관방문,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설문조사, 몽골인 유학생을 초대해 민속 춤과 전통음식 배우기 등이 지난 네달 동안 청년서포터즈 1기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서포터즈의 밤’ 행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청년서포터즈 1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멋진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만날 청년서포터즈 2기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인천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2012 신년음악회

2012년 임진년을 맞아 1월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대화합을 위한 신년음악회는 인천시립예술단의 다채로운 릴레이 공연으로 그려진다.

등불춤과 삼고무로 밝아오는 새해의 기상을 표현한 인천시립무용단의 천개(天開)를 시작으로 한 해의 바람을 정성스레 적어 읊는 인천시립극단의 '새해의 기도'와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펼쳐지고, 금난새 지휘자의 즐거운 해설을 곁들인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4명의 독창자에 힘입어 감동적인 멜로디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립합창단과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인천남성합창단 등 100여 명의 연합합창단과 함께 꾸미는 웅장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무대는 밝아오는 2012년을 더욱 빛나게 밝힐 것이다.

일시 1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1층) 1만원, S석(2층)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아츠 공연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978년 요한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페터 쿠트에 의해 창단된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30년 전통을 자랑한다. 이들은 빈 출신 음악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연주(전통적인 고전음악에서부터 빈의 상징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까지 '빈 음악'의 정수)를 선보여 가는 곳마다 찬사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켰고, 특히 일본에서는 10여 년간 꾸준히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신년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빈이 배출한 최대의 음악가로 불리는 페터 쿠트는 이 악단의 수석주자와 지휘를 겸해, 한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하는 화려하고도 특색 있는 연주를 펼친다. 조수미 이후 유일하게 유럽 메이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을 도맡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후 한국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유희승이 협연자가 되어 빈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준다.

일시 1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1월 공연 · 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인천여성문화회관 케스트라 연주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전석 3천원 ☎ 505-5995	4	5	6	7 2012 신년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울 오후 4시 1만원, 학생 무료 ☎ 760-3455
8	9	10	11	12	13 인천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2012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1층) 1만원, S석(2층) 7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1588-2341 재담 연희극 '효녀 심청' 오후 2시, 4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5-5995	14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에이디엔티 422-1543 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Twelve Singing Animals)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1시, 4시 전석 4만원 ㈜트윈영어 라트어린이극장 전석 3천원 ☎ 02-560-0979
15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에이디엔티 422-1543 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Twelve Singing Animals)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1시, 4시 전석 4만원 ㈜트윈영어 라트어린이극장 ☎ 02-560-0979	16	17 구강교육 뮤지컬 '당동이의 치카푸카' 서구문화회관 대강당 17일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오후 4시 전석 1만원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580-1155	18 트니성호의 왈츠 사이로 - 여행자의 일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6만원, R석 4만원, A석 3만원 ☎ Sens 02-749-8821 세계최초 해산물 마술사 김영진의 마술쇼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전석 3천원 ☎ 507-5996	19 빈 트라우스 페스티 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 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6만원, S석 4만 원, A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 관 ☎ 1588-2341	20	21
22	23	24	25	26	27	28 뮤지컬 <라이온킹>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극단술이 02-868-6748 조이브라스밴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4시 / 전석 6천원 ☎ 760-3455
29 뮤지컬 <라이온킹>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3시 전석 2만원 ☎ 극단술이 02-868-6748	30	31	1월의 展 2012 인천예술고등학교 동문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월 7일~1월 14일 가라쿠리 아트&체험전 계양문화회관 전시실 / ~3월 4일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 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 ~1월 8일 Eduardo Chillida 에두아르도 칠리다 신세계갤러리 인천점 / ~1월 16일			



1월 18일 / 세계 최초 해산물 마술사
김영진의 마술쇼 /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1월 28일 / 조이브라스밴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 오후 4시

착한 가격, 인심은 ‘덤’

설은 민족의 명절이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시기다. 설 명절 제수준비에 전통시장만큼 좋은 곳도 없다.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인심도 넉넉하다. 우리네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사람 사는 인정이 담백 스며있다. 이번 설 명절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못지않은 서비스 혜택과 질 좋은 물건을 사보자. 마트에 비해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재미있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이제 다양한 제품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서구 중앙시장 쿠폰발행, 배송센터 운영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남다른 특징은 공동배송센터가 잘되어 있고, 청라지구의 인구 유입으로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더욱 활기차다.

배송센터는 정규직원 3명으로 구성돼, 배송이 빨리 이뤄진다. 배송요청은 하루 평균 50

건, 많을 때는 80~90건에 달한다. 검단지역을 뺀 서구 전역은 다 배달된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특판세일을 한다. 시장 각 점포에서 세일 품목을 정해 수량, 가격을 정하면 상인회에서 통로 가운데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매주 금요일 특판세일 품목은 거의 원가로 판매하며 일부로 이때를 노려 장을 보러 오는 주부들도 많다. 시장은 전통시장답게 야채, 생선, 고기 등의 1차 상품 값이 저렴하다. 대형마트에 비해 30%, 소형마트에 비해 40%나 싼 편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덕택에 이곳은 루원시티 재개발로 인근 주민들이 다 떠난 상태지만 매출은 줄지 않았다. 청라지구에 새로운 주민들이 이 곳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고 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물건을 산 시민이 다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동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1장당 1백원짜리 쿠폰으로 1차산업 품목은 5천원당 1장, 공산품이나 정육은 1만원당 1장이 나간다. 시민들은 1천원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추첨 행사를 통해 쿠폰이 당첨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행운도 거머쥌 수 있다.

문의 : 576-6540



동구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인기

송현시장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다. 동구의 문화지구인 배다리 현책방,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인천공항, 차이나타운 등과 연계,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관광 요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시장은 관광객에게 시장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문화를 안내하는 문화해설사 30명을 양성,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

이곳도 다른 전통시장처럼 설 명절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수용품을 싸게 판다. 특히 만석부두가 가까워 생선의 신선도는 탁월하다.

배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물건을 산후 배송을 요청하면 집안에서 물건을 편안히 받을 수 있다. 쿠폰도 발행하고 있다.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1백원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시장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송현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답게 시장 자체적 브랜드인 ‘막걸리’를 생산, 시장을 알리는 주요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 막걸리는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햅쌀로 담갔고, 몸에 좋은 생강을 넣어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1병당 1천5백원인 이 쌀막걸리는 설 명절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 773-2368

중구 신포시장 닭강정, 공갈빵 등 특화상품 활기

1970, 80년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신포시장. 한창 때는 사람물결로 시장을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번성했다. 이 시장도 구도심이 활력을 잃고 대형마트에 밀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러던 시장이 시민 먹거리인 닭강정, 공갈빵, 화덕만두 등 특화상품 개발로 사람이 다시 모이고, 다시 활기를 찾았다.

시장은 설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 차림을 할 수 있도록 건어물, 과일, 야채, 생선, 고기 등의 제수용품을 고루 갖추고 있다.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시민의 발길이 잦다.

신포시장은 국제시장을 지향한다.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를 열고 대한민국 패션상가 2위의 자리를 차지하던 명성을 되찾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몽고, 중남미 등 국제무역상의 무역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대문 및 대구의 원단상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 772-5812



남구 토지금고시장 농수산물 신선도 단연 최고

시장으로 문을 연 지 10년 정도 된 남구 토지금고시장.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상권은 좋은 편이지만 주변에 대형마트가 포진해 있어 상권이 갈리고 있다.

이 시장도 저렴한 가격, 좋은 물건으로 승부수를 던져 시장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다. 과일, 채소 등 농수산물은 매일매일 경매를 거쳐 들어오기에 신선도는 단연 앞선다. 장보러 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30분 무료 주차권을 나눠준다. 또 내년 부터는 배송센터를 운영 배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010-7521-3768



명절엔 '온누리 상품권' 우리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집중 판매한다. 기간은 1월 20일까지다. 판매처는 새마을 금고, 기업은행, 우체국 등이며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면 구매금액의 3%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달의 서평



고전톡톡

채운, 안명희 | 그린비 | 2011

한 권의 고전 수다집으로, 톡톡 튀는 고전 소개와 고전 속 명문장과 지은이들의 체험이 결합된 글을 담았다. 이 책은 <걸리버 여행기>부터 맑스의 <자본>까지 50편이 넘는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삶에 통(通)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이콘

진중권 | 씨네21박스 | 2011

이 책은 철학이라는 운영체계의 아이콘, 즉 개념들의 용법을 다룬 일종의 매뉴얼이다. 천안함, 허경영, 심형래 등의 사회적 이슈들을 철학의 개념을 동원해 분석한 글로 구성돼 있으며 냉소적 이성, 시뮬라크르, 정체성과 차이 등의 주제별로 분류되어 큰 사유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스토리 클래식

진회숙 | 아트박스 | 2011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25곡을 음악에 얹힌 스토리로 풀어낸 클래식 해설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클래식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김수용 | 김영사 | 2011

다큐멘터리스트 박수용PD의 집념과 도전정신, 끈질긴 열정으로 마주한 불려디 메리라 불려던 한 암호랑이의 가족을 3대에 걸쳐 관찰한 기록을 담고 있다. 시베리아호랑이들의 삶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고전 톡톡	채운, 안명희	그린비	고통스러운가! 바로 고전을 읽어야 할 때다!
지식인의 서재	한정원	행성:B읽새	미친 듯 책을 탐하고 마침내 누군가의 책이 된 사람들
아이콘	진중권	씨네21박스	철학의 개념어를 통해 세상을 읽다!
만만한 경제학	김민준	지공신공	경제학은 재미있고 유쾌한 학문이다!
비즈니스의 거짓말	프릭 버울렌	프롬북스	당연하다고 믿어온 비즈니스 세계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난다
별헤는 밤 천문우주 실험실	김지현, 김동훈	어바웃어북	별 하나에 낭만 별 하나에 과학
스토리 클래식	진회숙	아트박스	모차르트에서 말러까지 이야기로 듣는 클래식
엄마영어 레시피	서석영	영교출판	집에서 간단하게 영어를 요리하자!
밥심	최일도	마음의숲	밥퍼 최일도 목사의 밥 맛 나고 살 맛 나는 이야기
달팽이 안단테	엘리자베스토바 베일리	돌베게	한 마리의 달팽이가 찾아준 삶의 의미!
영어 초선을 깨우다	김영철	일리	영어와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박수용	김영사	20년의 추적과 장복 끝에 마주한 시베리아호랑이에 관한 극적이고 경이로운 기록!



<이달의 인천작가>
시인 장석남

시인 겸 교수로, 1965년 8월 3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한양여자대학에서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며,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등단했다. 2010 제10회 미당문학상, 1999 제44회 현대문학상 시부문상, 1992 제11회 김수영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대표저서로는 <더레터>, <가을저녁의 말>, <뽕에 서쪽을 빛내다>, <젖은 눈> 등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남과 다르다는 것

‘부평 프리덤’ 조해리



“나이 오십이 되어도 빨간색 스키니 진을 입을 거예요.” 이 아가씨라면 중년의 나이가 되어도 스키니 진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멋지고 당당하게. 어느 날 케이블 채널을 무심히 돌리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를 보았다. 오렌지색 바가지머리에 징이 박힌 액세서리를 두르고 금빛 스커트자락을 휘날리며 스쿠터를 타는 그녀. 이름은 조해리, 나이는 올해로 스물아홉, 자칭 타칭 ‘부평 프리덤’으로 통한다.

‘그녀의 발랄함은 재능일까 재앙일까’. 방송은 내내 나이에 걸맞은 행동과 옷차림을 운운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뜯어고쳤다. 새롭게 변신한 모습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예뻐지만, 웬지 석연치 않았다. 사실 그녀는 변화가 필요 없었다. 본 모습 그대로 충분히 매력 넘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방송 후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약속장소인 부평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멀리서도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해골 모양으로 스펅글이 박힌 셔츠에 빨간 목도리를 풍뎡 댄 귀여운 아가씨. 작은 어깨에 멘 이스트 백에는 기계에서 뽑았다는 인형이 하나 가득 담겨 있다. 그렇지, 그녀가 변할 리 없다. “주의에서는 이제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며 걱정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잘못된 건가, 나를 세상에 맞추어야 하나’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간 후 오히려 제 모습 그대로를 좋게 봐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과 섞여 있을 때 비로소 안도한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저 그렇지 않고 매일이 즐겁고 새로운 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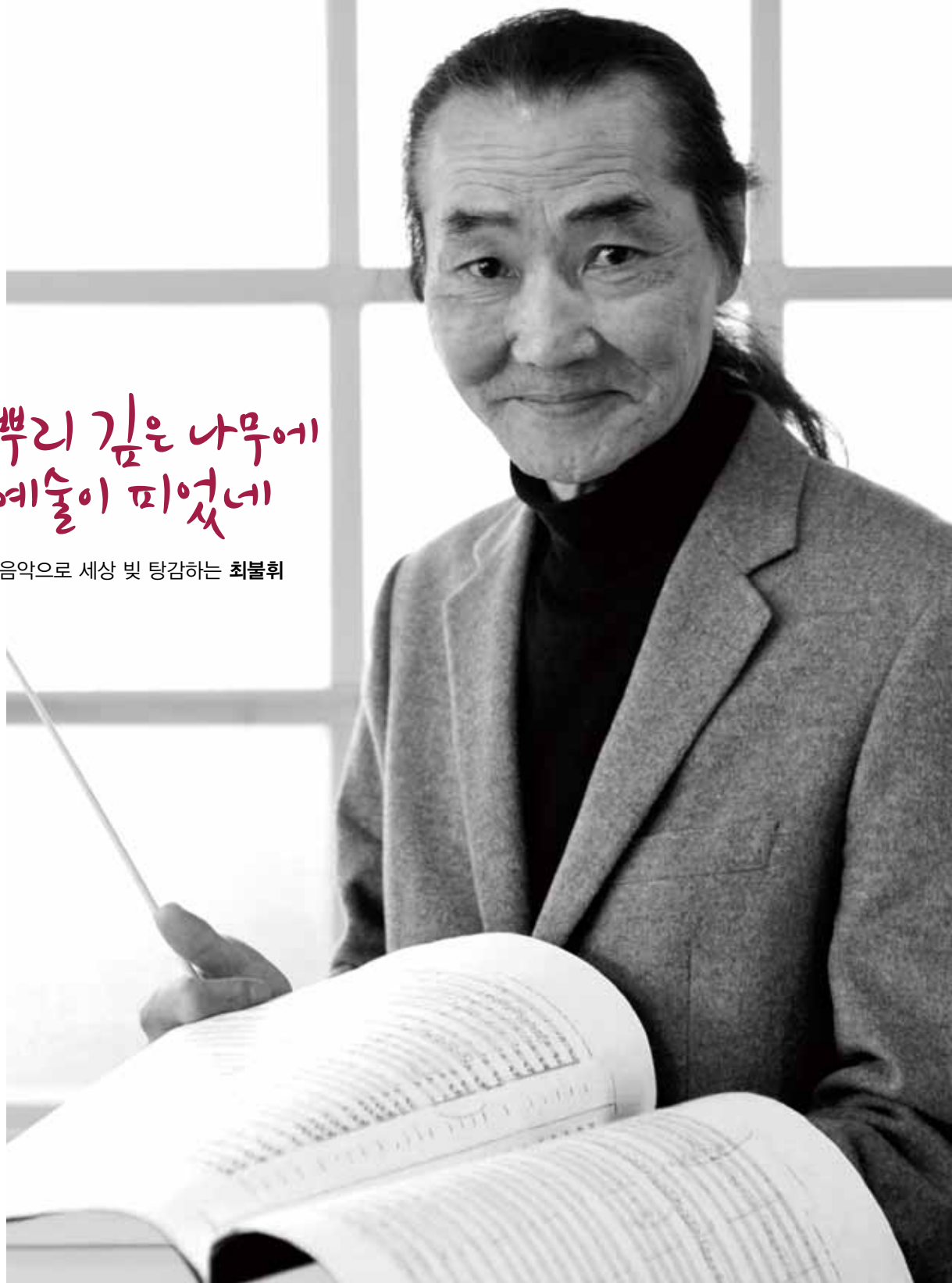
패션에 남다른 감각이 있는 그녀는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의류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때 부평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되요. 멀리 퀵 서비스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에요. 직접 스쿠터를 몰고 고객에게 옷을 배달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거예요. 어때요? 재미있겠지요?”

꼭 진지하고 엄숙해야만 성숙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른스러웠다. 그녀를 보며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틀에 박힌 생각과 행동으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뿌리 깊은 나무에 예술이 피었네

음악으로 세상 빛 탕감하는 최불휘



이름, 참 별나다. ‘최불휘’ 라는 이름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고집’이었다. 그 느낌이 아주 세계 왔다. ‘불휘 기쁜 남간 바라매 아니 뵈새, 곳 도쿄 여름 하나니...’ 반복해서 이를 되내이며 남동구 간석동 연습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름만큼이나 외모도 튼다.

“부모님은 항렬 따라 ‘도열’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고 그 이후엔 ‘불휘’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자작(自作)해서 고쳤다.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다. 한때 그림도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을 땐 ‘예춘’이란 이름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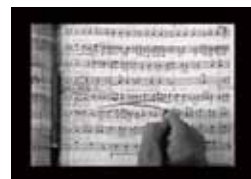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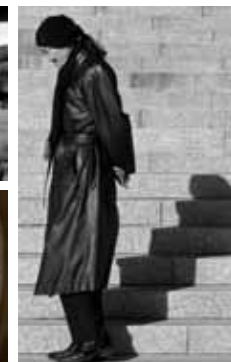
여러 갈래로 살아왔지만 최불휘(58)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 보면 그 끝에 음악이 있다. 노래가 좋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대의 기라성 같은 성악가 오현명, 박성원을 무작정 찾아갔다. 수업료를 낼 만큼 여유롭지 못해 어깨 넘어 귀동냥 하듯 배웠다. 그러던 중 일본 동경 YB합창단 객원지휘자 제의를 받고 얼떨결에 데뷔를 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길로 보파리를 싸서 본고장 독일로 건너가 1년 6개월간 오선지와 씨름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맨하탄 유스오케스트라 등 십여 개의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이끌었다. 그리곤 뮤지컬 장르에 또 하나의 뿌리를 내린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황태자의 첫사랑’ 등을 한국 초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내친김에 극단 ‘민네’의 상임연출자로 자리를 옮겨 연극 ‘신의 연출’을 음극(音劇)이란 실험적 공연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근데 마음이 허하다. 예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때 심장동의 신명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달라는 제의를 받는다. 악기는 있는 데 선생님이 없단다. 겨우 소리 내는 법을 가르쳤는데 덜컥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다. 악기 잡은 지 3개월 만에 대통령 앞에서 연주를 했다. 뽁뽁 소리만 냈는데 모두들 감동 먹은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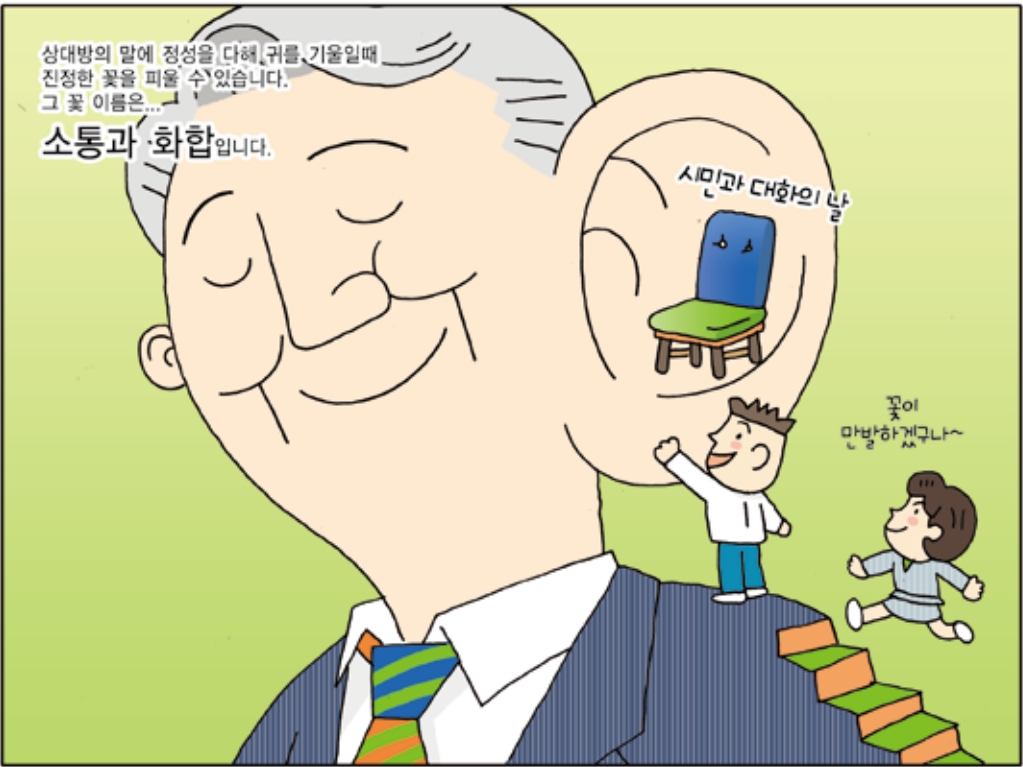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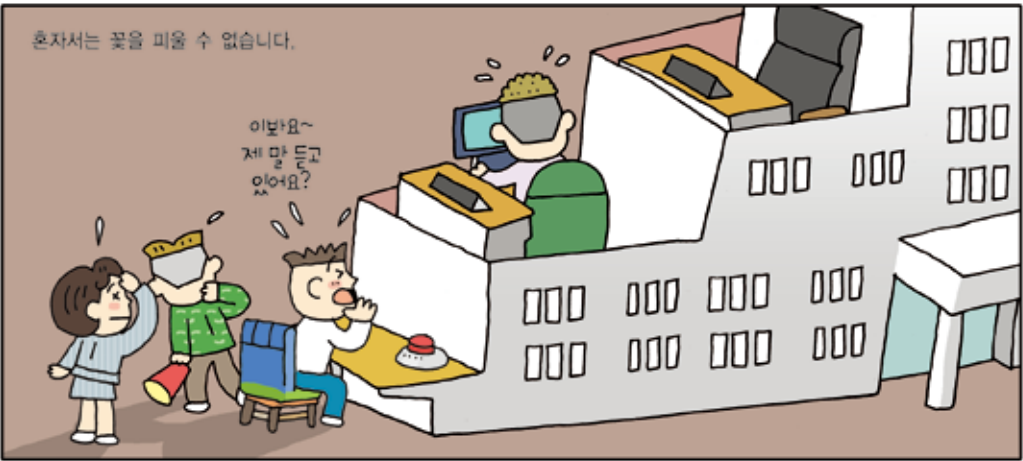
최불휘는 이런 봉사활동을 ‘빛 탕감’이라고 말한다. 세상에 큰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재능기부를 하면서 그 허한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일수 짝듯 하루하루 빛을 갚으면서 뿌리 깊은 그의 나무에는 꽃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시장과의 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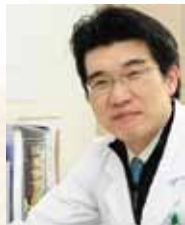
그림 안종만



※ 우리시는 매월 1회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장과 시민이 만나 애로사항과 불편을 듣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28

‘늘 즐겁게’
혈압 올리지 마세요

글 나사렛국제병원 한방내과 이승언 과장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중풍을 포함한 고혈압 관계 순환기 질환으로 전체 사망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혈압은 체온, 호흡, 맥박과 함께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 손발에 피가 부족하면 머리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부족한 피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분비하고 혈압을 올린다. 따라서 혈압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혈압을 올린 원인을 찾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비만한 사람이 혈압이 높다면, 체중을 먼저 줄여야겠고 혈압이 있다면 복부비만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운동은 말초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운동과 함께 순환기능을 원활히 한다.

또한 혈압이 높으면 중풍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특히 혈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현대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30대 뿐만 아니라, 20대에게도 고혈압과 중풍이 나타나고 있다. 한방에서 말하는 중풍이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다. 즉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파열돼 발생하는 뇌졸중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중풍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식보다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을 적당히 해야한다. 또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자주 체크하면서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좋지 않은 생활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특히 부모나 형제가 고혈압, 중풍이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혈전용해제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체적인 원인을 놓치게 된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사람에 따라 생긴 이유가 다르고 차이가 있으므로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또 중풍은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므로, 이를 체크하면 중풍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미리 나타나는 중풍 증상

- ①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뻣뻣하여 감각이 둔하다.
- ② 팔다리에 힘이 줄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
- ③ 감각이 둔해져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
- ④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무거우며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 ⑤ 말이 둔하게 나오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

불 자동차 사이렌 소리에 ‘자나깨나 불조심’



글 조우성 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불은 아득한 태초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은 벼락을 내리치고, 땅은 불을 뿜어냈으니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조상들에게 불은 신의 것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였으리라. 더불어 불은 만물을 정화시켜 주는 동시에 세상을 되살려내는 힘을 지녔다고 믿었을 것이다. 온갖 생명을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버리지만, 훗날 그 땅을 더욱 더 살지게 하여 화려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대자연의 현상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그 불을 다루고, 나아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던 것일까? 그것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발견이자, 경험이었을까? 그리하여 인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에너지인 빛과 열로써 문화와 문명의 싹을 키우고, 자연의 속박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불을 신성시하던 저 원초적 본성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전국체전 때, 강화 마니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아 대회 기간 내내 성화를 밝히는 일이라든가, 이사를 가면서 연탄의 불씨를 굳이 살려가는 풍속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불은 위험한 존재다. 한눈을 팔면 언제나 생명을 넘본다. 찰나에 마귀로 돌변해 뜨거운 입으로 온갖 것을 삼켜버린다. 인류는 불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화마를

쫓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써 왔지만, 실은 특별한 방책이 없었다.

그래서 옛날 백성들은 일단 불이 나면 모두 ‘소방수’가 되어 불끄기에 나섰다. 손에 쇠갈고리, 불채, 도끼, 불땡개, 물 양동이 등 당시의 ‘소방기구’를 들고 달려가 진화작업에 임했는데 목숨을 잃는 이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신식 소방기구가 들어오고, 불끄기 전문가인 ‘소방수’가 등장한 것은 개화기 이후였다. 인천에서는 1884년에 ‘소방조(消防組)’가 설치되었고, 1896년에 그것이 ‘공설 소방단’으로 발전하면서 펌프질로 물을 뿌리는 것보다 다소 개량된 기구들을 선보였지만, 대형 화재에는 그것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재앙의 해’였던 1907년에도 그랬다. 3월 5일, 지금의 중구 신포동에서 불이나 무려 400채나 되는 집을 불태웠고, 10월 19일 각국 거류지에서 또 19채가 전소되는 등 그 한해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587채가 전소돼 인천은 큰 공황에 빠졌었다고 한다.

당시 인천부는 민심수습 차원에서 소방 시설을 대폭 보강해 저수지 설치, 증기 펌프 도입, 망루 건설, 상비대기소 설치 등을 서둘러 시행했다. 1913년에는 지역 유지들이 420여 원을 각출해 조선인 마을인 지금의 중구 경동에 ‘상비파견소’를 신설하고 소방수와 기구를 배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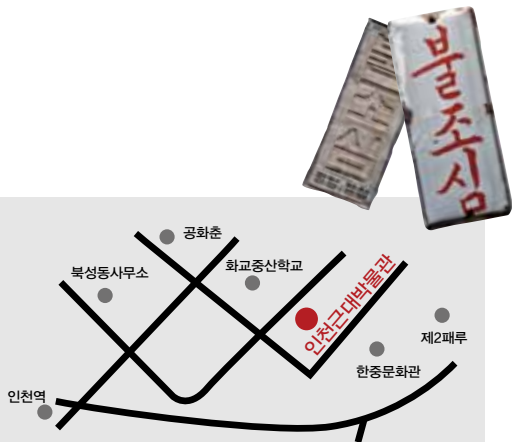
1960년대 불조심 포스터



1950~60년대 석유등잔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불조심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관장 최웅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인천에 현대적인 소방 활동이 펼쳐진 것은 광복 후인 1947년부터였다. ‘인천상비소방조’라는 일본식 명칭부터 ‘인천소방서’로 바꾸는 한편 자유공원 사이렌 탑에 설치한 소방 망루에서의 감시활동도 강화했다. 미국에서 원조 받은 신식 소방차 15대를 갖춰 인천을 위협하는 화마와 본격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유난히 불이 잦았다. 겨울철에는 ‘불조심 강조주간’도 두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명작 불조심 구호는 그때 생긴 것이다. 학생들은 ‘불조심강조주간’이라고 쓴 비닐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 인천소방서 불자동차들은 날을 잡아 사이렌을 울리며 시내를 누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느닷없는 사이렌 소리가 배다리 일대를 뒤흔들었다. 깜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모교인 송림초등학교에서 시꺼먼 연기가 꾸역꾸역 솟아오르더니 금세 시뻘건 불길의 하늘 높이 뻗쳐오르고 있었다. 그 광경은 결코 ‘신나는 불구경’이 아니었다.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옆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황인춘 선생님이 서 계셨다. 선생님과 필자는 길 한복판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불의 무서움을 절감했었다. 그 아름답던 배움의 터 송림학교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요, 생생한 불조심 표어다.

2014 인천 AG ‘1000일의 다짐’

우리는 지난해 12월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D-1001일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수 신임 조직위원장과 송영길 시장, 홍일표, 이상권 국회의원, 류수용 시 의회 의장,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 마사토미즈노 부회장, 티샤 위제 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등 4명의 주한 외교사절까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D-1001일 카운트다운 점등식과 대회 유니폼, 경기복 등 100여 벌의 창작유니폼 패션쇼를 선보여 참석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역대 대회중 가장 내실 있는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스포츠 약소국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국 전체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36개 종목의 경기 세부일정을 확정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무엇보다 운영 적자 없는 대회를 위해 대규모 물량 투입을 자제하고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알찬 컨텐츠 중심으로 대회를 치러낼 방침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313



세계적 水처리 기업과 협약 체결

세계 물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사가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아시아·태평양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베올리아워터 아시아태평양 홍콩 본사에서 베올리아워터 아시아태평양 대표이사 등과 송도 4공구에 아태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MOA)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베올리아워터사는 아·태 수(水)처리 기술교육 훈련센터를 오는 2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720-2152

온라인으로 창업지원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1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의 창업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www.jst.or.kr)를 정식 개통했다. JST 홈페이지는 창업 아이디어 성공사례, 창업 멘토 상담, 창업 뉴스, 실무 가이드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진흥원은 매년 2천여 명의 창업 희망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창업 교육을 받고 기술거래 이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실 440-3264

강화에 종합스포츠타운 들어선다

체육시설 부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강화군에 종합 스포츠 타운이 들어선다. 강화군은 오는 2013년 6월까지 365억원을 들여 길상면 공설운동장 주변 총 11만8천㎡ 부지에 ‘길상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스포츠타운은 프로야구 SK와이브스 2군 연습·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SK드림파크’와 테니스코트,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포함된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한다. 문의 : 강화군 930-3863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혜택이 ‘와르르’

우리는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게 1월부터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요금 3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물의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인천시청, 10개 군·구청,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뒤 전자인증표(RFID)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문의 : 시 건설교통국 440-3852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따라 이용자는 납세 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한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등 인터넷 상으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국 440-2577

인천~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 탄력

인천~백령도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신규 여객선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선박 수용능력 대비 여객·화물 운송 수입을 나타내는 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이 35%에서 25%로 완화됐고, 면허 신청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여객 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일 경우에는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항만공항해양국 440-4988

자전거로 즐기는 아라뱃길

자전거를 타고 굴포천을 따라 경인아라뱃길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완성됐다. 계양구는 2억원을 들여 부평과 계양 사이 경계지점인 아나지로에서 굴포천을 따라 경인아라뱃길까지 6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계양구는 내년에 서부간선도로 서운사거리에서 인천지하철 임학역까지 1.5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계양구 도시개발국 450-5543

亞최대 항공훈련센터 세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6일 보잉사 출자회사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운항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보잉사가 100% 출자한 ‘보잉트레이닝서비스코리아(BTSK)’는 협약 체결에 따라 2014년까지 인천시 중구 운북동 3만3천㎡ 터에 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TSK사는 센터 안에 2천500만달러(약 300억원)짜리 전체비행시뮬레이터(FFS) 16대를 설치하고, 보잉사 본사의 훈련교관 200여 명을 파견해 연 평균 3천명의 조종사 훈련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73

제2의 포항제철고, 송도에 생긴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명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해 12월 15일 체결했다. 시는 송도 자사고가 포스코 교육재단의 교육철학과 운영노하우로 제2의 포항제철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4

인천시 청렴도 서울·부산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치고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등 3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민원인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인천시는 종합청렴도 8.49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0.16점이 향상되어 7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시 감사관실 440-3181

웅진군, 故 서정우 하사 피폭현장 보존

웅진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고(故) 서정우 하사가 북한군 포탄 파편에 맞아 산화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안으로 1천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웅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3-52에 위치한 서 하사의 피폭 현장에 보호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석, 망배단 등을 세울 계획이다. 문의 : 웅진군 899-3912

자녀양육도 품앗이로 돌보세요

우리는 지난해 12월 5일 이웃과 함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열었다. 시는 이날 부평구 부평동 지상 2층, 연면적 242㎡ 규모의 신축 나눔터 건물에서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터 개소식을 가졌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가 이웃들과 함께 자녀 품앗이 조직을 구성해 자녀를 번갈아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시는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장난감·도서 등을 지원한다. 문의 : 시 여성가족국 440-2872

인천도시공사, 28일 공식 출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통합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기관 통합은 지난해 8월 말 인천시 발표에 따라 공기업 경영혁신 및 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기업 혁신 및 경영진단, 조례개정, 임원채용, 조직정비 등을 거쳐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451-2537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시대 연다

연세대에 이어 한국외대가 2016년 송도캠퍼스 시대를 열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송도캠퍼스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외대는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를 거쳐 2013년 초 착공해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의 근간이 되는 통번역 센터를 비롯, 한국어 문화원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1

네온사인·난방온도 단속한다

우리는 오는 2월까지 난방온도와 네온사인 등에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이에따라 피크시간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켤 수 있다. 또 전력다소비 건물 2천795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8곳,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312

예방접종, 지역구분 없이 무료

올해부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거주지 구분없이 보건소나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29일 복지건강부에서 서울,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다. 3개 시도는 이번 정책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접종률이 향상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종류는 B형 간염, 결핵, 일본뇌염, 수두 등 10종의 백신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풍진 등 11종의 감염병이다.
문의 : 시 보건복지국 ☎440-2747



장보러 시청으로 오세요~

수요일마다 시청은 시끌벅적하다. 맛있는 음식냄새가 솔솔 배어나오기도하고,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로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일장터가 열린다. 1일장터에는 야채·과일·정육·반찬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들고나온 물건들이 가득하다. 입소문 덕분인지 민원인은 물론, 인근 회사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장터를 찾기도 한다. 1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에는 물건값의 5%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번주 수요일에는 시청으로 장보러 가면 어떨까?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웅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어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했다. 수년째 우리 영해를 유린하며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둘러 온 중국어선의 만행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특위 활동 종료

인천광역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여 온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7차례의 간담회와 7차례 걸친 회의, 3차례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및 2차례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인천대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입료 5% 인하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2012년도 인천대학교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입료 5%를 인하하고,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2012년도 시립 인천대학교 등록금 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위주로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 시스템 설치 등 6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등록금 5%인하금액에 해당하는 18억 6천만원을 삭감했다. 인천대학교에도 앞으로 편성할 2012년도 기성회계 예산에도 5%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 소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고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사업비를 당초 4천451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약 3배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시의 반박 해명 보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의회 승인절차 등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일반화)와 직선화사업, 루원시티사업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등 관련된 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 순환도로, 항만의 재배치 등으로 간선화가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간선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유력언론매체 기자단 접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인천광역시의 프레스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방문한 중국의 유력 언론매체 기자단을 접견하고 명예홍보 디렉터로 위촉된 기자단에게 인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종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2월23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청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1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2012 임진년 '의정비전'

시민에 희망주는 의정 펼친다

2012 임진년 인천시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 구성되는 제2기 의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종이없는 디지털의회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시민의 아픈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시민에게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도 비상 của 나래를 편다.

학생의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의회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회활동 차원에서 의정아카데미 및 학생방청을 운영한다. 시민의정 프로그램은 연 4회 실시되고, 학생의정 체험프로그램은 연 8회 초·중·고생이 대상으로 연다.

의정외교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에 힘쓴다. 기존의 상호 교류도시 이외에 미국 호놀룰루 시의회, 일본 기타큐슈와 교류를 통해 세계속에 시의회의 위상을 펼쳐보이게 된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한사랑나눔캠페인에 참여한다. 시의원은 매달 급여에서 장학금 5만원과 만원미만의 우수리를 의회사무처 직원은 봉급에서 만원미만의 우수리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전문기관 연수·교육, 자치입법활동 지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국회사무처,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연수 및 교육에 수시로 참여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쟁점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추진된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연3회 운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 의장 현장방문 수시 추진, 대학교수와 특강 및 토론을 벌이는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을 운영 정책적 문제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균형감각을 향상 한다. 또 시정현안 발생시 전문위원실로 공청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상 만들기에 앞장선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시의 주요사업, 재정운영 여건 등을 사전에 설명을 듣는 예·결산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시 주요 예산사업인 AG경기장, 도시철도 등 주요 현장방문을 연 2회 추진한다.

클릭! 시의원 _ 김정현 의원



“인천공항 환승객 위한 관광루트 개발”

인천의 주요 경제기반인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현 의원(45, 중구 제2선거구). 김 의원은 시정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종·용유가 지역구이기에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와 애정은 더욱 크다.

“송도국제도시 발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영종, 청라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된 부분도 많아 사업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인천 구도심을 사랑한다. 신포동에서 보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어 정겹고 반갑다. 김 의원은 신포동을 비롯한 구도심에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도 관심사다. 환승객 대부분이 서울로 관광이나 쇼핑을 떠나는 현실이기에 인천을 보여줄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인천 경제는 물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그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유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합인 건의안’ 발의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2 임진년에는 인천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국가경제도 좋아져 인천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부평역 앞에서 사랑의 빨간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Council News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한사랑 나눔캠페인 협약체결 및 사랑나눔 장학생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강화군 교동을 방문,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취지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방학맞은 어린이, 청소년 모여라!

미추홀도서관은 1월 새해를 맞아 방학을 맞은 어린이 및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직업군 특강 ‘청소년을 위한 직업 안내서’
- 일시 : 1월 7일(토), 1월 14일(토) 14:00~15:3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지하1층 강당
- 대상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00명
- 강사 및 강의내용

강의일시	강연자	직업군	이력 및 경력
1월 7일(토) 14:00~15:30	신성욱	다큐멘터리 작가 /프로듀서	KBS 스페셜, 생로병사의 비밀, 읽기혁명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 제작, 뇌가 좋은 아이 저자
1월 14일(토) 14:00~15:30	문은아	드라마 작가	KBS드라마 ‘못아라 동해아’, ‘너는 내 운명’ 작가

- 접 수 : 방문, 인터넷, 전화
- 문 의 : 440-6662, 6665
- 원화전시회
- 일시 : 1월 16일(월)~31일(화)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로비
- 대상 : 전체
- 작품 : ‘야쿠바와 사자 1 - 용기’ 원화 16점
- 문의 : 440-6662, 6664

2012 우리시 사자성어 ‘동심동덕’

우리시는 2012 임진년 시정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선정했다. 동심동덕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같이하여 일치단결하는 마음으로 상서 태서편에 나오는 성어다. 중국 주나라 문왕의 아들 무왕은 포악한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은나라의 도읍인 조가로 진격했다. 그곳에서 무왕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단결하여 싸움에서 공을 세우자는 다음의 〈태서〉를 발표했다.
“주왕은 많은 군사와 관리를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한데 합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다함께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목표로 마음과 덕을 같이하고 있다(同心同德).”
동심동덕은 2012년 한해도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는자는 우리시의 마음을 담고 있다.

1월문화 예술행사 보러보세요

- 율목도서관에서 만나는 ‘Old & New’
- 일시 : 1월 9일(월)~1월 12일(목)
- 1월 9일(월) : 〈알거리〉 율목도서관의 역사 소개
현재 율목도서관 이용법 등 도서관 알기
- 1월 10일(화) : 〈먹거리〉 인천지역 사람들의
먹거리 역사 소개 및 향토 먹거리 체험 등
- 1월 11일(수) : 〈생각거리〉 풍경, 사람, 물건 등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생각 나누기
- 1월 12일(목) : 〈놀거리〉 전통놀이 및
현재 아이들의 놀이 등 체험
- 대상 : 누구나
- 관람료 : 무료
- 문의 : 770-3804
- 이야기 보따리 술술!! ‘형제 · 자매’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대상 : 유아 및 초등학교생
- 문의처 : 770-3812

율목도서관 갤러리

- 윤미네 집 : ‘패밀리♡ 왜 미리 잘못했을까’
(가족의 풍경이 담긴 전몽각 사진전)
- 일시 : 1월 1일(일)~1월 31일(화)
- 장소 : 율목도서관 어린이도서관 2층
- 대상 : 누구나
- 문의 : 770-3807
- 원서 VS 번역서! 짝꿍도서전
- 일시 : 1월 1일(일)~1월 31일(화)
- 대상 : 누구나
- 문의 : 770-3808



동구영어교육원 무료수강생 모집

동구영어교육원은 동구청이 주최하고,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영어교육 복지사업. ‘놀이로 배우는 영어’를 모토로 지역주민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 강의일정(반별 14주차)

구 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종강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18일	4월 26일	4월 20일
휴강일	1월 23일	1월 24일		3월 1일	

- 접수기간(1월 3일~13일, 토, 일 제외)
- 기존회원(87기) : 1월 3일(화) 오후 1시~1월 4일(수) 오후 6시 (선착순 1강좌)
1월 3일은 오후 1시부터 www.deng.or.kr의 ‘강좌안내’에서 ‘시스템 수강신청’만 가능하며, ‘재학생의 학부모’로 미리 회원가입, 시스템 수강신청은 1월 4일(수) 오후 6시.
1월 4일 오전 9시부터 8기 회원에 한해 ‘현장 수강신청’ 접수.
- 신규회원(동구 주민) : 1월 5일(목) 오전 9시~선착순 마감 (선착순 1강좌)
1월 5일(목) 오전 10시까지 인원 초과반은 방문객 대상 오전중에 추첨 진행
- 접수절차
- 재료비 이체(농협 301-0010-6567-71로 입금)
- 접수방법 : 선착순
(단, 1월 5일 오전 중, 동구 신규회원은 추첨 실시)
- 수강료 : 무료 (동구청 지원)
- 재료비 : 학기당 2~5만원
- 문의 : 772-7905

1월 과학자와 만남의 날 행사

- 인천어린이과학관은 1월 과학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린다.
- 강의주제 : 미생물, 넌 누구니?
 - 신청기간 : 2011년 12월 23일~1월 11일
 - 일정안내 : 14:00~14:50 강연
 - 참가대상 : 8세이상 어린이 및 학부모
 - 참가방법 : 신청양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장소 : 과학관 1층 세미나실
 - 일시 :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 550-3334

2012년 여성복지관 월별테마특강

여성복지관은 2012년 월별테마특강을 운영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명 절 : 차례상 지내기, 예절교육 등
- 이사철 : 부동산 기초상식 및 경매요령 강좌
- 봄 철 : 피크닉에 걸맞는 다양한 도시락 만들기
- 여름철 및 방학 : 다이어트 음식 및 가족대상 미술교실 등
- 김장철 및 연말 : 김장 담그기, 케익&초콜릿 만들기 등
- 전 연령층 대상 : 재테크 상식 및 인문학 강좌 등
- 접수기간
- 1~3월 특강 : 2011년 12월 6일~선착순 접수
- 4~6월 특강 : 3월 6일~선착순 접수
- 7~9월 특강 : 6월 4일~선착순 접수
- 10~12월 특강 : 9월 4일~선착순 접수
- 문 의 : 440-6541

2013년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

우리시는 2013년 인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상징물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대회마크(엠블렘) · 마스코트 · 포스터 · 구호 각각 1점, 표어 5점 등 총 5종 9점이며, 응모 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다.
우리시는 2월 중 당선작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최우수작 300만원을 비롯, 수상자 33명에게 총 2천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문의 : 시 문화관광체육국 440-4107

겨울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연수문화원은 겨울학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교육기간 : 2011년 12월 29일(목)~2012년 2월 22일(수)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26일(월)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연수문화원홈페이지(yeonsu.or.kr)
 - 연수문화포털사이트(call.yeonsu.go.kr)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2:00 (점심시간)12:00~13:00
 - 교육내용 : 문화 · 교양, 음악 · 전통예술, 미술 · 공예, 어학 · 컴퓨터
 - 문의 : 821-622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2012년 중학교 1~2학년 총 40명
- 운영시간 : 월~금 16시~ 20시 30분, 2, 4주 토요일
- 프로그램

교과학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개별숙제지도, 독서활동
주중체험과정	방송댄스, 모듬북, 영어연극/뮤지컬, 우쿨렐라, 공예반, 생활체육, 논술반, 과학실험반
주말체험과정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 자원봉사활동, 놀이문화체험
생활지원과정	급식, 간식지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장학금지원, 귀가차량지원

-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 문의 : 777~7942(내선4번)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정부는 우리 주변의 기부, 봉사, 선행,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거나 선행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 추천기간 : 3월 31일

〈어떤 사람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이웃을 돕고 배려한 분 : 봉사, 기부, 인명구조 등
- 국민들에게 희망과 영예를 안겨준 분 : 국위선양, 기피분야 헌신, 고난극복 등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 분 : 장애인고용, 서민생계기여 등
- 주변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밝힌 분 : 효행, 가족애 실천 등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독립운동, 보훈, 참전유공, 학술, 연구, 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분야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본요건 심사 → 공적내용 검증 → 포상 심사 및 결정 → 포상수여

〈포상은 언제 수여합니까?〉

2012년 6월경 포상할 예정입니다.

- 문의 : 02-2100-3539

2012 청소년 앙코르왓 해외문화탐방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및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고자 '2012년 청소년 앙코르왓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한다.

- 활동명 : 2012년 청소년 앙코르왓 해외문화탐방
- 기간 : 2월 20일~24일(3박 5일)
- 장소 : 캄보디아(앙코르왓)
- 대상 및 인원 : 인천지역 초6~고3 청소년 20명
- 내용 : 캄보디아(앙코르왓) 문화유적지 탐방 및 체험, 청소년 교류 또는 봉사활동
- 참가비 : 1인 86만7천600원
(항공료, 유류할증료, 비자발급비)
※체재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지원함
- 문의 : 465-6827,8

뽀로로의 신기한 놀이터 , 송도 레이싱 파크

인천도시공사는 송도컨벤시아에서 특급 체험형 이벤트를 펼친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뽀로로 놀이동산 '뽀로로의 신기한 놀이터'와 겨울철 활동량이 적은 어린이를 위한 실내 어린이 레이싱 테마파크 '송도레이싱파크'가 송도에서 열린다.

- 뽀로로의 신기한 놀이터

- 일시 : 12월 16일(금)~ 2012년 2월 19일(일)
-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 놀이내용 : 100여 명이 동시 수용 가능한 '에어바운스랜드', 모래를 이용한 '모래사장'과 '샌드아트',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뽀로로와 친구들의 '숲 속 놀이터', 맛있는 브라우니를 만들 수 있는 '베이커리', 캐릭터들의 춤과 음악을 엿볼 수 있는 '싱어롱쇼',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놀이', '그림놀이'

- 문의 : 1688-2633

- 실내 자동차 체험전 '송도레이싱파크'

- 일시 : 12월 21일(수)~2012년 3월 4일(일)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홀
- 놀이내용 : 아동의 작동능력과 순발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전동카트존' 대형 슬라이딩 바운스로 이루어져 아찔한 스릴감 즐기는 '바운스 슬라이드존',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하이킹존', '미니카 경주'를 통해 성취감 고조 및 순발력을 키워주는 '무선자동차 경주존', 유아를 위한 '부릉부릉 키즈존' 등
- 문의 : 1688-2633, racing-park.co.kr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딸 아이의 돼지 저금통... 나의 전화 한 통...
이웃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행복으로 돌아 왔습니다

ARS기부 **060-700-1212**

기부상담 **080-890-1212**

기부정보확인서비스
www.chest.or.kr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경제가 힘들다고 한다. 매년 인천의 고용률은 쏠쏠하다. 시민은 일자리로 행복하고 일자리가 있어 마음 편하고 든든한 삶을 꿈꾼다. 시민의 삶의 근거이자 희망이 될 소중한 일자리 정보를 소개한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주)영진정공	자동차공학기술자(기계)	3명	경력	대졸(2~3년)	개발영업/연구개발 품질관리 경력자	연수구 송도동 7-25	연봉 2,400만원
주식회사휴먼앤비전	영업 관련 관리자 (영업소장,지점장)	2명	경력	학력무관	아웃소싱 영업관리직-제조,생산 부문	부평구 부평동 417-8	
계우특판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사무원)	1명	경력	고졸~대졸(4년)	품질관리(HACCP) 모집	남동구 고잔동 730-10	월급 200만원
세무사안전란사무소	경리사무원 (세무,회계 사무소)	1명	경력	학력무관	경력직원 모집	남동구 구월1동 1178	
하이메트(주)	전기안전관리기술자	1명	관계없음	고졸~대졸(4년)	공무직원 급구	남동구 남촌동 620-5 11B/6L	
도이첸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1명	경력	학력무관	영업관리(판매관리)	남구 학익1동 587-7	
나눔과기쁨복지센터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요양보호사 모집	남동구 논현동	
태원물산(주)	품질관리기술자	1명	관계없음	대졸(2~3년)~ 대졸(4년)	품질보증팀 정규직 4급기사 채용	인남구 주안5동 1385-4번지	
(주)세종인디스트리	품질관리기술자	1명	경력	대졸(2~3년)	품질관리 및 개발 담당 (금속류_스프링/프레스)	남구 도화동 697-1	연봉 2,400만원
(주)영진정공	자동차공학기술자(기계)	3명	경력	대졸(2~3년)	개발영업/연구개발/품질관리 경력자	연수구 송도동 7-25	
서부전력(주)	산업전공	1명	경력	학력무관	전기기술자중급자 구인	서구 심곡동 283-13	월급 200만원
ATS	자동화전기설비설계 기술자 및 연구원(계장기술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화전기설비설계 기술자 및 연구원(계장기술자)	연수구 선학동 386-4	
(주)세광특수강	CNC밀링기조작원 (NC밀링기조작원)	2명	신입	학력무관	양두밀링 및 밀링 조작업무	남동구 고잔동 699-9 126 블럭 8 로트	연봉 2,400만원
노아호	선박 갑판원 및 관련 종사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선박 갑판원 모집	연수구 선학동 340 정광아파트	월급 200만원
(합)세기자동차	자동차정비원	4명	경력	학력무관	자동차 정비 엔지니어	남구 학익1동 587-71	연봉 2,400만원
하이메트(주)	전기안전관리기술자	1명	관계없음	고졸~ 대졸(4년)	공무직원 급구	남동구 남촌동 620-5 11B/6L	월급 200만원
선재물링	연삭기 및 연대(광택)기 조직원	1명	경력	고졸	원통연삭	남동구 고잔동 256-5	
영진정밀	범용선반조작원	1명	경력	학력무관	범용선반조작원	남구 송의동 435-5	
(주)나우테크	범용밀링기조작원	3명	경력	학력무관	범용 밀링 가공 경력자(3~4호기)	남구 주안1동 3-23	
한일열처리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영업사원 모집	동구 송림4동 297-9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자료를 참고한 사항으로, 조기에 구인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 458-7488,74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찰칵



장원



바지락 캐러 가는 길

3년 만에 다시 찾은 덕적도에서 바지락 캐러 가는 길입니다.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어머님과 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한동안 다리를 못 펼 정도로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캐더니, 양이 엄청나더군요. 섬에 가면 바지락은 꼭 캐보세요~
_ 한경숙 계양구 이화동



나도 동화 속 주인공

동화 속 주인공 피터팬, 후크선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마치 나도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도 어릴적 꿈은 꿈과 희망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_ 김민희 남동구 구월동



할머니와 손주들

시골 할머니댁, 베어놓은 통나무와 돌덩이로 마당에 의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앉으니 긴 의자가 딱 차네요. 모두 할머니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지요.
_ 김선영 연수구 연수동

12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김순희 | 남동구 만수5동
김지수 | 중구 을목동
이미란 | 남동구 서창동
조지현 | 부평구 부개3동

최현지 | 남동구 서창동
여은영 | 연수구 동춘3동
성정애 | 서구 불로동

황혜란 | 남구 관교동
김원미 | 남구 주안4동
이연 | 중구 제물량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3매)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이 시대에 생태적으로 살기

글 양성욱 에코힐링스쿨 교장

경쟁과 성장 위주의 삶에 지쳐 자연의 품에서 정신도 몸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강화도로 옮겨 온 지 10년. 드넓은 갯벌과 바다, 산과 들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 온 자연살이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들도 도시에서 하루를 지내기가 힘들 정도니 시골로 이사한 것에 뿌듯함마저 느낀다. 어른들이 짜준 매뉴얼에 맞춰 학원에 학교에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아이들의 마음과 몸 상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미래가 건강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 어디를 둘러보아도 네온사인과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둘러싸여 있고, 자동차를 비롯해 인간이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 속에서 따뜻한 온정과 생명치유, 평화를 말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생태적으로 살기란 꽤 힘들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늘과 빛, 바람과 나무, 흙 식물과 교감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받는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데 가장 좋은 대상은 자연이다. 우리가 먹고 싸면서 개발해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대상, 존경과 섬김의 대상 또한 다시 자연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사는 강화도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도시흥내를 내는 데 모두들 혈안이 되어 있다. 도로도 자동차도 집모양이나 길모양도 모두 도시흥내를 내려고 한다. 먹는 물마저 팔당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석유와 전기도 다 외부에서 들여다 쓰는 실정이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



는 것이 표를 얻는 것이라고 믿고 예산따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멘트길, 아스팔트길에 거부반응이 없다.

시골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원형성을 잃어 결국은 교통사고와 건강파괴, 유지관리비용만 늘어나는 데도 대규모로 공단을 유치해야 하고 아파트단지를 개발해야 땅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길은 기계로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시멘트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논두렁밭두렁길 이요, 숲속 생명길이다. 사람들이 겨우 지나칠 정도의 골목길은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길이다. 새해에는 오염되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진 옛 우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고치고, 석유와 기계 중심의 대량소비적 생활에서 자연이 순환하는 삶으로 변화를 준비하자. 지역에서 나오는 건강한 흙과 물, 나무와 돌로 치유적 공간을 만들어 어디에 가도 똑 같은 집, 놀이터, 학교, 회사의 모습에서도 벗어나보자. 자연에서 오는 감사한 밥상을 차리고 먹이며, 이웃과 나누고 모든 자연생명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 시대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참모습이 아닐까 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달리지 않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결코 포기와 게으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배운 것들이다.” <굿바이 게으름> 문요한, 더난출판, 2007 중에서

실업과 경제난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몰입과 열정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문요한님의 글을 읽으며 희망을 본다. 2012년 새해에는 아이의 맑은 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와 칭찬으로 다시 울곧게 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하는 메시지다.



同心同德 동심동덕

우리시는 2012년 새해 시정철학을 담은 4자 성어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선정했습니다. 상서(尙書)에 나오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시는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이 4자 성어에 담았습니다.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한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로부터) 이만수 SK와이브스 감독, 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단장, 송영길 인천시장
금난새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허정무 인천유나이티드 감독